

실패한 기획으로서의 ‘한중¹⁾합작반공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강범구, 1968)

박선영*

국문초록

이 글은 공보부가 기획했던 ‘한중합작반공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실패한 기획이 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공모부터 제작과 상영에 이르는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1960년대 중반 한국영화의 욕망과 한국영화에 대한 국가적 욕망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그 실패의 영화사적 의미를 재고한다.

반공우방국이었던 대만과의 합작을 추진했던 국가의 기획은 반공공보와 영화 수출의 욕망이 교차한 지점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대만영화 산업 안에서의 외화 수용의 변화, 한중합작영화 <탈출명령>의 실패, 전쟁‘반공’영화 장르의 시의성, 대만 정부의 지원 부재 등 다양한 층위의 요인으로 합작 시도는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 또한 원작이 라디오 드라마를 거쳐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녹음 대본으로 개작되면서, 멜로드라마와 전쟁영화로서의 매력은 반감되고 반공 선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수출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칼

* 고려대학교 객원연구원(영화사 전공)

1) 1966년 당시 기준으로, 대만은 대만, 중국, 중화민국, 자유중국, 타이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공모 당시의 용어를 감안하여 인용일 경우 ‘중국’, 그 외의 경우는 대만으로 표기한다.

맑스의 제자들>은 합작과 수출을 위해 기획되었으나, 기획의 목적을 철저히 배반한 영화가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한국영화에서 국가의 기획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 할 것이다.

주제어: 대만, 반공, 수출, <칼 맑스의 제자들>, 한중합작반공영화, 합작

1. 들어가며: 공보부 현상모집 시나리오 당선작 <칼 맑스의 제자들>이 영화화되기까지

1966년 3월 공보부 조사국 3과는 공보부 주최의 “씨나리오 현상모집”을 기획하고, 3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신문에 광고를 싣는다. 공보부장관 홍종철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이 광고는 “한중합작반공극영화”(천연색) 시나리오와 “국산극영화”(흑백) 시나리오를 모집한다는 것인데, 1966년 3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의 공모를 거쳐 1966년 5월 15일 오후 5시,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을 신고 있다. 현상금은 각 40만원으로, 한중합작반공영화의 경우에는 “범국민적인 반공사상의 계몽과 반공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고 아세아반공유대를 강조하며 세계우방에 반공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우수한 한중합작반공극영화”에 해당하는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²⁾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것은 부산철도청 소속 공무원 이은성의 <칼 맑스의 제자들>이었는데, 당시 임희재, 차범석, 조남사, 최금동, 김강운, 김지현 등 유명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방송작가 등으로 이루어졌던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선정했다. 국산극영화(계몽영화) 부문에 응모한 작품들이 <칼 맑스의 제자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할 만큼,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³⁾. 그런 한

2) 「극영화 씨나리오 현상모집공고」, 『동아일보』, 1966.3.11.4면.

3) 「현상모집 씨나리오 심사결과 보고 및 건의(1966.5.30.)」,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

편, 심사위원들은 이 시나리오가 기획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중 양국이 합작한다는 점에서는 약간 기울며 또 촬영시기상, 공보부에서 의도하는 바 금년 10월 개봉목표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공보부의 기획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작 한 편을 추가로 선정하여 빠른 시일 안에 반공영화를 제작할 것을 권유했다.”⁴⁾ 즉, 시나리오 현상모집 당선자 발표가 애초의 계획보다 늦어진 5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10월 개봉을 목표로 하기에는 ‘한중합작’이라는 전제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뿐더러, 시나리오의 배경이 주로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에 촬영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칼 맑스의 제자들>이 즉시 영화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가작으로 전창식의 <냉과 열(자유의 강을 건너라)>을 선정하였고, <냉과 열>은 대한연합영화주식회사에서 이만희 감독 연출로 영화화 되어 1967년 4월 개봉함으로써, 공보부의 영화제작 기획을 먼저 실현시켰다.

한편, <칼 맑스의 제자들>의 영화화가 합작을 위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조남사는 시나리오를 각색하여 중앙방송국(현 KBS) 제1방송 라디오 연속극으로 먼저 선보였다. 연속극은 1966년 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 월요일까지 총 29회차로 마무리되었는데, 매일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송⁵⁾되었다. <칼 맑스의 제자들> 라디오 연속극은 평단에서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12월에 동아방송 조사연구실에서 발표한 “올해의 연속 방송극 베스트 텐” 중에서 1위⁶⁾를 차지한 데 이

류(한국영상자료원 소장자료. 이후 자료 소장처는 생략); 「극영화 씨나리오 현상제 모집 공고」, 『조선일보』 1966.7.14. 이 광고에서 “3월 12일자 일간신문공고를 통하여 실시한 바 있는 극영화 씨나리오 현상모집에 있어서” “극산영화부문에 당선작이 없으므로” 제모집을 공고하는데, 이전보다 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범국민적인 반공사상의 계몽과 반공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6.25 동란의 전모를 소재로 한 전쟁사적 극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씨나리오”임을 명시하여, 기존의 계몽영화보다 소재와 주제를 정확히 지정한다.

4) 「현상모집 씨나리오 심사결과 보고 및 건의(1966.5.30.)」,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5) 「라디오, 텔레비전」, 『동아일보』 1966.6.20.-7.18에 실린 편성표 참고.

어, 1968년 2월 방송극 제작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1966년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혔다.⁷⁾ 또한, “웬만큼 히트”⁸⁾라고 평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영화화를 목적으로 했던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은 먼저 라디오 연속극으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과 방송 관계자 및 평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끝난 직후에는 『영화TV예술』 1966년 8월호에 원작 시나리오가 실리면서, 화제성을 이어갔다.

그런데 금세 영화화될 것 같았던 이 시나리오는 다사다난한 제작과정을 거쳐, 당선작 발표로부터 2년이 지난 1968년 5월이 되어야 단성사에서 개봉할 수 있었다. 제작연기의 이유가 되었던 ‘한중합작’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빠지고 연방영화사 단독 제작의 반공영화로 만들어진 채였다. 1960년대 내내 공보부는 몇 차례의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대부분이 ‘반공영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지만, ‘합작영화’, 그것도 ‘한중합작영화’라는 조건을 걸었던 것은 <칼 맑스의 제자들>이 당선되었던 1966년 3월, 단 한 번뿐이었다. 즉, <칼 맑스의 제자들>은 공보부가 직접 나서서 ‘합작’ 영화 제작을 시도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이자 유일한 시도였다.⁹⁾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야심찬 시도는 ‘합작’에 실

6) 「방송 드라마 양산의 해/ 작품 수로 본 66년 작가 10인/ 풍요 속에 빈곤/ 전체적으로 질 낮아」, 『대한일보』 1966.12.28.4면.

7) 윤일호, 「반성기에 선 라디오 연속극/ 고질화한 제작상의 모순을 깨낸다/ 아리송한 작품의 태도/ 영화화 전제로 특성 없어」, 『경향신문』 1968.2.10.5면.

8) 「질보다 양이 풍성/ 상반기의 방송드라마/ 작품 모두 2백8편/ 동원된 작가 56명/ 영화화는 겨우 18편 뿐」, 『대한일보』 1966.7.9.5면.

9) 국가에서 ‘반공’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1961년이 그 첫 시작이었다. 국방부 정훈국장 명의로 올라간 이 반공극영화 시나리오 모집에서 (「극영화 씨나리오 현상모집」, 『조선일보』 1961.2.1.3면) 신봉승의 <두고 온 산하>가 당선되었고, 이후 이강진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1966년의 공모 이후, 1967년에 공보부장관 명의로 “씨나리오 방송극대본 현상모집”은 영화씨나리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극을 모집했는데, 내용은 1. 국가발전에 핵심이 되는 경제건설의 대열에 국민이 적극참여할 수 있는 테마, 2. 지역사회개발과 향토애를 불러일으키고 농어민의 발전향상을 기할 수 있는 내용, 3. 생산적인 국민상(가치관)을 부각시키고 새롭고 진취적인 우리의 생활관 확립을 테마로 한 내용, 4. 반공사상을 양양시킬 수 있는 내용, 5.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과 명랑한 사회질서를 주제로 한 것으로서 예술성이 높은 내용 등이었다(「씨나리오 방송극대본 현상모집」, 『동아일보』 1967.12.21.8

패하고 ‘반공’만 남은 영화가 되었다. 특히 합작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외 시장의 개척에 있다고 본다면, <칼 맑스의 제자들>은 제작 이후 수출과정에서도 실패를 맛 본, 철저하게 기획을 배반하는 영화로 남았다.

이 글은 1966년 공보부에서 시나리오 공모와 제작지명을 통해 제작하고자 했던 ‘한중합작반공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시도되고 실패한 기획이 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66년 3월 시나리오 공모를 시작하여 1968년 5월 마침내 상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수출의 실패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따라가며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실패의 재구성을 통하여 1960년대 중반 한국영화의 욕망과 한국영화에 대한 국가적 욕망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 실패의 영화사적 의미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2. 실패한 기획으로서의 ‘한중합작’

1966년 3월부터 시작된 한중합작반공영화 시나리오 공모에는 총 76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심사위원들은 5월 21일 1차 심사위원회, 5월 25일 2차 심사위원회, 5월 28일 3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작으로 <칼 맑스의 제자들>을 추천하였다. 심사결과는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5월 30일 보도되었다.

<칼 맑스의 제자들>의 영화화는 제작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공보부에서는 1. 한중영화제작에 필요한 경비, 인원 및 제작능력을 갖춘 자, 2. 1966년 12월 말까지 제작을 완료할 수 있는 자¹⁾, 3. 천연색

면). 이를 이어 1968년 4월 3일에는 역시 공보부 장관 명의로 “제2회 씨나리오 방송극대본 회곡 현상모집”을 진행했는데, 이 모집은 1. 반공부문과 2. 계몽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제2회 씨나리오 방송극대본 회곡 현상모집』, 『동아일보』 1968.4.3. 2면.) 한편, 1969년부터는 공보부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 주동진의 이름으로 시나리오 현상공모가 진행되는데, “국민의 승공사상과 반공 방첩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반공영화공고’를 설치”하고, “보다 우수한 반공영화를 제작코져 방화사상 최고액의 현상금을 걸고 반공영화 씨나리오를” 모집했다.(『반공영화 씨나리오 현상 모집』, 『조선일보』 1969.3.20.2면.)

제작을 조건으로 수락하는 자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다섯 회사를 후보로 추려 공보부 장관에게 지명을 요청하였다.

〈표 1〉 공보부 추천 합작영화 제작 지명 회사 후보¹¹⁾

제작사	대표자	합작영화 제작실적
주식회사 신필름	신상옥	홍콩 쇼부러더스사와 <달기>를 제작상영하였으며 현재 2편의 영화를 합작 중에 있음
연방영화주식회사	주동진	중국 건화영업유한공사와 <국제금괴사건>을 합작 중
주식회사 아세아필름	이지룡	홍콩 유린필름과 <위기 X-7호> 및 <비련>을 합작 중
대한연합영화주식회사	홍의선	합작실적은 없으나 동영화제작을 건의
극동공업주식회사	차태진	합작실적은 없으나 동영화제작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음

이 중에서 공보부는 한중합작영화 <달기>로, 합작영화로는 유래 없는 성공을 거둔 신필름에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신필름은 7월 15일 합작지명을 수락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인 11월 2일 신필름은 공보부장관에게 민원 서신 「한중합작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에게 대한 재고요청」¹²⁾을 보낸다. 이 공문은 중앙전영사업고분유한공사(中央電影事業股份有限公司, Central Motion Picture Corporation, 이후 중앙전영) 측에서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으므로, 영화 제작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만의 중앙전영은 1954년 국민당 정부가 설립하고 주관한 국영영화제작회사로,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영화사를 접수해서 만든 대만영화사업유한주식회사와 반공영화 제작을 위해 만든 농업교육영화공사를 합쳐서 만들었다. 1960년대 당시 영화제작, 스튜디오, 필름현상, 녹음과 편집, 더불어 배급에서 상영까지 다양한 영화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주체로, 1960-70년대 대만 영화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영기업이었다.¹³⁾ 중앙전영은 첫째, 이와 비슷한 유형

10) 이 중 두 번째 조건은 1967년 *월(알아볼 수 없음)로 수정되었다.

11) 「한중합작영화 제작자 지명(1966.6.17.)」,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12) 「한중합작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에게 대한 재고요청(1966.11.2.)」,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의 영화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많이 상영되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의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둘째, 작품의 배경이 북한이지만, 정확한 지명은 불분명하다는 점, 셋째, 주연배우는 모두 한국인이고 중국인들은 모두 조연인데, 보통 합작 시에는 주연 배우를 나눠서 정했다는 점, 넷째, 중국인의 관점에서 이 영화의 드라마 플롯이 자국의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합작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신필름이 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앙전영의 담당과 함께 신필름은 대만과 합작을 못하게 될 경우, 사실상 대만 및 동남아지역 수출이 어렵고 국내용으로만 제작하기에는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이미 다수 제작되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작품 교체” 내지는 새로운 “작품선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기, 신필름은 <달기>(1964)의 성공 이후 연달아 <대폭군>이라는 두 번째 대규모의 “합작 스펙터클 시대극”을 제작하는 중이었으나 제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66년은 이미 ‘스펙터클’ ‘시대극’의 시간을 넘어 007류의 액션 영화가 “관객들을 점령”하는 시기¹⁴⁾로 이행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 맑스의 제자들>과 같은 반공영화로는 더 이상 ‘자유진영’의 연대 안에서도 관객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작영화’라는 것만으로는 수출도, 내수 시장 확보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신필름은 이 기획에서 한발 물러났다.

신필름과 중앙전영의 합작 결렬이 보고되고 3주 정도 지난 11월 21일, 공보부는 이 영화의 제작권을 연방영화주식회사(대표 주동진, 이후 연방영화사)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조건을 제시한다. 1. 한중합작 천연색으로 제작할 것, 2. 이 영화를 당부(공보부) 추천작품으

13) 「2015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합작영화1: 강범구(이후 「강범구」), 배수경 채록연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2015, 19쪽; 사우축, 「1970년대 대만 국책영화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5-17쪽.

14) 이영재, 「아시아영화계와 한중합작 시대극- 아시아영화라는 범주의 생성과 냉전」, 『대동문화연구』 제88집, 2014, 295-297쪽.

로 선정하여 제작편수에서 제외시킨다, 3. 제작기간은 6개월, 4. 작품의 제작 및 공연권은 당부가 지정한 자가 갖는다(향후 5년), 5. 일부 변경 및 각색은 인정하나 테마 및 작가의 이미지는 변경하지 못한다, 6. 제작에 따르는 제반 편의는 당부가 제공, 7. 제작 진척사항을 수시로 당부에 보고할 것.¹⁵⁾ 이 중에서 4번과 6번은 기안 이후 지워진 것으로 미루어, 나머지 다섯 가지의 조건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조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째, 한중합작 천연색은 이 영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합작은 기획 시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 해도, ‘천연색으로 제작할 것’이라는 조건은 조금 더 살펴볼 만하다. 1957년 <이국정원>부터 시작하여 모든 합작영화들이 홍콩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컬러로 제작되었던 것에 더하여, 한국의 영화계 안에서도 <성춘향>(1961) 이후 컬러 시네마스코프 사극 영화 제작이 유행했다. 1965년 이후부터는 사극영화가 아닌 “통속물과 전쟁물”도 컬러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영화는 대부분 흑백으로 제작¹⁶⁾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칼 맑스의 제자들>을 컬러영화로 제작하라는 조건은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을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국내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1966년 8월의 제2차 영화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5년 국산영화 제작편수가 국내시장 수급조절상 적정편수라고 판단한 150편을 훨씬 넘어선 189편을 기록하자, 국산영화 수급조절을 명목으로 영화법에 따라 제작권 배정제(제작쿼터제)가 실시¹⁷⁾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5) 「한중합작 반공극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 제작 지명자 변경(1966.11.18.)」,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기안은 1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시행일자는 11월 21일로 명기되어 있다.

16) 정중화, 「1960, 70년대 한국영화 기술사」, 이효인 외, 『한국영화사 공부 1960-1979』, 한국영상자료원 편, 2004, 245-252쪽. 이 글에서 정중화는 한국영화가 완전한 컬러영화의 시대로 진입한 것은 1969년이었다고 기술한다.

17) 박지연,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 2005, 197-200쪽. 1967년부터 이 업무는 ‘한국영화제작자협회’로 이관되어, 적정편수의 상한선을 150편으로 보고 이에 맞춰 등록 제작사에 제작권(제작쿼터)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화제작 편수 제한으로 인해, 한 기사는 “120편의 제한 편수를 쪼개어 5편 정도씩 제작권을 나눠 담은 19개의 등록영화사는 제

제작쿼터 외의 한 편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제작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리한 제안이었다. 세 번째 조건은, 결국 이 영화가 해를 넘긴 1968년 5월이 되어서야 개봉했다는 점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었다. 여섯 번째의 조건은 지워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철도청, 국방부, 대만 대사관, 그리고 미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연방영화사의 요청에 따라 공보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제공했기 때문에, 지명 조건과 상관없이 공보부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조건들은 동남아시아 수출과 국내 상영 시의 이점을 파악하여 컬러영화 제작을 독려하고 별도의 제작쿼터를 마련해주었으며 제작에 따르는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보부가 <칼 맑스의 제자들>의 제작과 흥행, 나아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 속에서 제작을 수락한 연방영화사 대표 주동진은 수락서¹⁸⁾를 보낸 바로 다음 날인 1966년 12월 8일 공보부로 협조공문을 보낸다.¹⁹⁾ 공문에 따르면, 연방영화사는 대만 측 중흥영업유한공사(이후 중흥영업) 대표 고인하(가오런허)와 계약을 맺었는데²⁰⁾, 고인하로부터 제작에 앞서 중국 측 정부에 다음과 같은 협조요청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공보부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1. 반공합작영화

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이며, “국내 영화가가 공전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덕이는 영화제작/ 을 들어 겨우 10편 신청/ 외국 합작분과 편수 제한책으로 등록사 제작권 배당에 군소업자 반발」, 『한국일보』 1966.2.17.7면.

- 18) 연방영화주식회사 주동진, 「극영화제작지명수락서(1966.12.7.)」,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 19) 연방영화주식회사 주동진, 「한중합작반공극영화제작에 따르는 지원협조요청(1966.12.8.)」,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 20) 각주 19에 언급된 서류에 첨부된 계약서에 1966년 12월 5일자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방영화주식회사는 공보부에 제작지명을 수락하기 전에 이미 중흥영업과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양측에서 ‘선전비’(광고비용)를 제외한 실 제작비 5만불의 반인 25,000불씩을 각각 담당하고 제작 장소를 한국에서 한다는 것, 연출, 각본, 주요 출연자, 촬영, 음악, 녹음, 편집 등 대부분 주요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한국 측에서 구성하고 대만 쪽 스태프의 한국 체류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며, 대만 쪽에서는 연기자 몇 사람, 그리고 필름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한국은 한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과 일본을, 대만은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및 기타 동남아시아지역의 판권을 갖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전면적인 고려(鼓勵)와 협조를 보장, 2. 반공사상과 인생의 교육 윤리 양양에 목적을 둔 영화이므로, 중국 정부가 전국에 걸쳐 군, 민, 학생을 동원하여 관람하도록 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 3. 상영예정일은 1967년 3월 29일로 하며, 영화 완료 후 중국 원수 및 정부 각료에게 관람을 요청함과 아울러 양국 원수 간에 성공의 축전을 교환, 4. 중국 정부의 재정적, 정신적, 전면 고려를 요청, 5. 본 영화제작진행에 관여하는 연기자 및 제작요원의 출입국 제반에 대한 협조 등.

이 요청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위의 다섯 가지 요청사항은 모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즉, 이 영화가 ‘반공합작’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과 상영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는 ‘반공영화’에 대한 대만 영화계의 냉담한 반응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만 측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흥영업이라는 합작 파트너와 1966년 12월이라는 시점을 둘러싼 맥락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만의 중흥영업은 대만의 제작자이자 감독인 고인하가 1961년에 설립한 제작사이자 수입배급사로, 1964년경부터 <창살 없는 감옥(대만 개봉명 <제3특공대>)>(강범구, 1963), <유랑극장>(강범구, 1963), <대지의 지배자(대만 개봉명 <동북유격전>)>(정창화, 1963), <판문점>(김영식, 1963) 등의 한국영화를 다수 수입하여 대만에서 흥행시킨 회사였다. 고인하는 자신의 첫 연출작 <최후심판>(1964)의 흥행으로 큰돈을 벌게 되자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한국과 합작으로 대작을” 기획한다.²¹⁾ 본인이 수입했던 영화들 외에도 <안개 낀 거리> 등 강범구 감독의 영화들이 당시 대만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강범구 감독을 기용하여 최초의 ‘한중합작영화’인 <탈출명령(대만 개봉명 <최후명령>)>(1966)을 제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독의 연출료와 신영권을 비롯한 한국 배우들의 출연료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작비를 중

21) 「2015년 한국영화사 기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합작영화1: 고인하(이후 「고인하」로 표기)」, 박혜영, 배수경 채록연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2015, 11-14쪽.

흥영업에서 부담했던 <탈출명령>은, 당시 대만의 평균 제작비 20만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200만 달러를 예산으로 잡았으나, 예상과 달리 기획과 제작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림으로써 예산의 두 배를 넘긴 5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하게 되면서 큰 실패를 맞보았다.²²⁾²³⁾

다음으로, <탈출명령>의 실패를 겪고, 대만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던 1966년이라는 시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당시 대만의 외화수입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대만에서 한국영화의 수입이 급증했던 시기는 1963년 하반기부터 1965년 초까지였다. 사실상, 이 시기 한국영화의 급작스러운 대만 진출은 대만-일본의 악화된 관계로 인해 가능했다. 당시 외화 쿠포제를 도입하고 있었던 대만영화계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유럽영화, 일본 영화에 대부분의 쿠포를 배정했는데, 한국은 ‘그 외 국가’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정해진 수입 쿠포가 없던 상황이였다. 그러나 일본영화가 미주유럽의 영화보다 대만에서 차별 받는다는

-
- 22) 「고인하」, 14쪽.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작자 고인하와 감독 강범구의 기억에 큰 차이가 있다. 강범구는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제작비 건질 정도 보통”의 평균적인 흥행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제작기간 역시 고인하의 기억처럼 준비까지 2년이 걸렸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 “석 달” 걸렸다고 증언했다. 이후 후반작업 중 현상은 일본에서 켈러로, 나머지 편집과 녹음은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진행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평균적인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강범구」, 배수경 채록연구, 위의 글, 18-27쪽 참고) 한편, 대영영화사에서 공보부에 제출했던 제작신고서에 따르면, 한국 쪽 제작사에서는 이 영화의 촬영 일정을 1965년 10월 20일-11월 10일까지 약 20일 간으로 신고했다(대영영화주식회사 윤병구, 「합작영화제작신청서(1965년* 정확한 날짜 없음)」, 『탈출명령 심의서류』). 그러나 사실상 촬영은 1966년 1월 말부터 5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한 기사는 신영균이 1월 30일 대북으로 떠나 로케 촬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5월 12일의 기사 역시 여전히 이 영화가 촬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예 화제] 새 디스크와 3호 작품과 사인공세와」, 『조선일보』 1966.2.10.5면; 「[연예] 스타들 출국분/ 로케를 외국에서/ 합작영화 20편도 겹쳐/ 아시아영화제로 배우교류 더욱 활기/ 홍콩 일본서 찍는 것만 7편」, 『서울신문』 1966.5.12.8면.) 이와 같은 기억의 오차는 실제 영화를 기획하고 대부분의 제작비를 감당했던 중흥영화사와 소수의 인원과 자본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 감독이 체감하는 ‘실패’의 정도와 양상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 23) 「추석을 즐겁게/ 극장예의 초대」, 『신아일보』 1966.9.28.5면. 이 기사는 <탈출명령>에 대한 간략한 평을 전하면서, “강범구 감독은 흔한 외국의 2차 대전 비화 영화를 흉내 내려고 했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불만으로 일본이 대만수출을 중단하자, 대만에서도 1963년 7월 1일을 기해 일본영화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²⁴⁾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홍경 사건²⁵⁾으로 대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에서 일본영화의 수입, 상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²⁶⁾ 이런 기조가 1964년 말까지 지속되는 사이 한국과 대만의 영화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4년에는 대만에 32편의 영화를 수출함으로써, 대만이 가장 많은 한국영화를 수입한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²⁷⁾ 그러나 1965년 초 대만이 다시 일본영화 상영을 허가하면서, 한국영화는 대만 시장에서의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다시 연 8편 남짓한 ‘그 외 국가들’에 배정된 쿼터 안에서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²⁸⁾ 대만에서 한국 영화가 짧은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기획되었으나 예상보다 2년이나 늦은 1966년 9월에 개봉했던 <탈출명령>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007 위기일발>(한국개봉 1965년 4월, 대만개봉 1964년 6월) 이후로 시작된 첩보영화의 전 세계적인 붐으로 인해, 2차

-
- 24) 「우리영화 대량 해외로/ 자유 중국에 8편/ 아세아영화제서 얻은 평가로/ <백년한>은 국내와 동시 상영」, 『한국일보』, 1963.7.5.7면.
- 25) 주홍경(Zhou Hongqing) 사건은 1963년 10월 방일했던 중국의 유압기 시찰단 통역사 주홍경이 대만으로 망명을 희망하고 대만에서도 강력하게 정치적 망명사건으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에서 주홍경 본인이 다시 중국 본토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며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대만-일본의 관계가 악화된 사건이다. 「중일 분규의 씨뿌린 주홍경/ 대만망명 요구/변의... 중공위환결정의 경위」, 『동아일보』 1964.1.7.3면.
- 26) 「현지서 본 대북아세아영화제 전야/ 진부는 양식의 문제/ 상 사측분배설/ 잘 팔리던 우리영화 6월부터 다시 일화에 놀릴 듯/ 심사원의 반이 중국인이니」, 『한국일보』 1964.6.2.7면.
- 27) 「영화와 한국인/ 64년의 한국영화계 종합보고/ 청춘물(방화), 전쟁물(외화)이 수위/ 관객.. 방화 연 6백 66만, 외화는 5백 78만/ 서울시민 평균 7회 이상 개봉영화 구경」, 『조선일보』 1965.1.28.5면.
- 28) 「외화수입 못 따르는 방화수출/ 코터 노려 무턱대고/ 연간 수출액이 외화 한 편 수입액도 안 돼/ 착실한 시장조사 먼저」, 『경향신문』 1967.5.13.8면. 한편, 이 시기에 대만 영화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데에는, 대만의 국내외적 사정뿐 아니라 한국의 영화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 영화법 개정에서 외국영화 수입쿼터 배정 기준 중 한국영화 수출실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정 직후인 1964년 수출편수가 15편에서 87편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1965년과 1966년에는 다시 30,40편대를 유지하다가 1969년 138편으로 급증했다. 박지연,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 2005, 216쪽.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영화는 1966년 시점에서, 이미 한국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시대에 뒤쳐”지고 “한물” 간, 철지난 유행이었다. 더욱이 대만에서 한국영화의 입지가 좁아진 시기였다. 고인하는 이 영화의 실패로 영화사가 폐업할 정도의 곤란을 겪게 되었다.²⁹⁾ 이 실패를 두고 한국의 한 평자는 대만 수출을 위해서는 그들의 취향에 맞는 영화(천연색 대형 스크린 활극물)을 제작해야한다고 지적³⁰⁾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시점에 <탈출명령>을 공개하여 큰 실패를 맞본 증흥영업에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영화이자 반공영화를 또다시 공동제작하자는 제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을 터이다. 그런 한편, 고인하가 구술한 바와 같이, <탈출명령> 직후의 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연방영화사 주동진의 도움으로 또 다른 한국영화들을 ‘만아’ 대만에서 흥행시키고자 했던³¹⁾ 고인하에게, 주동진의 합작 제안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과의 합작에서 큰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던 증흥영업으로서는, 더욱이 ‘반공영화’의 합작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대한민국 공보부의 지원뿐 아니라 대만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공보부는 이 요청들을 모두 승인한 뒤,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대사 앞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³²⁾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방영화사는 유현목 감독을 내정하여 제작을 준비했다.³³⁾ 1967년 4월 시점까지 유현

29) 「고인하」, 14-15쪽.

30) 「외화수입 못 따르는 방화수출/ 코터 노려 무턱대고/ 연간 수출액이 외화 한 편 수입액도 안 돼/ 착실한 시장조사 먼저」, 위의 기사.

31) 「고인하」, 28-29쪽.

32) 「수신 주한 중화민국대사/ 한중합작 반공극영화 제작에 대한 협조의뢰(1966.12.22)」,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33) 1967년 초, 유현목 감독 관련 기사에서 <칼 맑스의 제자들>이 <전장>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언급된다. 먼저, 1967년 2월 14일 『동아일보』에는 「문예영화 붐」이라는 기사가 실리는데, 이 기사에서 문예영화 붐에 이어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의한 “본격적인 작품들”도 적지 않게 기획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이은성의 <전장(칼 맑스의 제자들)>(감독 유현목)이 지목된다(「문예영화 붐」, 『동아일보』 1967.2.14.5면). 같

목 감독으로 되어 있었던 연출자는 1967년 9월 11일에 제출된 제작신고서에서 莊珩(장간), 즉 강범구 감독으로 바뀐다.³⁴⁾ 그런데 제작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인 9월 6일, 연방영화사는 공보부에, 철도청과 국방부에 막대한 물량의 지원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먼저 보낸다. 철도청에는 몇 종류의 화차, 국방부에는 다량의 군복 및 총, 포, 공병용 모래푸대, 폭탄, 앰블런스 및 트럭, 지프차, 오토바이, 헬리콥터와 탱크, 그리고 군인 3,1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물량과 인원에 대한 협조요청서를 사전에 보냈던 것이다.³⁵⁾ 또한, 제작신고서에 따르면 영화의 착수연월일은 제작신고서가 제출되기 하루 전인 9월 10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영화사는 9월 11일 제작신고서 제출 이전에 실질적인 제작을 시작했고 이에 따르는 지원 요청을 사전에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공보부와 제작사 사이에 제작과 지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공문들이 접수되고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난 뒤, 9월 21일에 연방영화사가 공보부에 보낸 「칼 맑스의 제자들 제작에 관한 건」에서 “합작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³⁶⁾ 주동진은 유능한 중국 제작업자와 합작을 기획하고 3차에 걸쳐 대본 내용에 대한 수정과 타협을 거듭하였으나, 중국 측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중공군이기 때문에 자국 상영 시, 반응과 전망이 어둡다는 것, 대한민국 공보부를 통하여 대만

은 해 4월에는 유현목 감독이 김지현 각본의 <종아> 크랭크 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공보부 현상당선작인 “<전장>(원제 칼 맑스의 제자들)”은 <종아> 뒤로 미뤄졌다고 쓰고 있다(「연예수첩」, 『동아일보』 1967.4.6.5면).

34) 「영화제작신고서(1967.9.11.)」,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강범구 감독이 활동명이나 예명으로 장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 밖의 다른 예는 찾지 못하였으나 심의대본의 “스탤” 페이지에 감독 莊珩(康範九)라고 되어 있다.

35) 「영화촬영에 대한 지원요청 협조(1967.9.6.)」,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이 물량에 대한 지원이 실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남아 있는 필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원요청에 대하여 공보부는 10월 13일 국방부 장관과 철도청장을 수신처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다. (「반공 극영화 제작지원 의뢰(1067.10.13.)」,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36) 「칼 맑스의 제자들 제작에 관한 건(1967.9.21.)」,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공보부 앞으로 협조를 의뢰하였으나 대만 정부 쪽에서 어떤 대답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동남아 일대 수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합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단독 제작의 가부를 조속히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민원에 첨부된 중흥영업에서 보낸 거절의 편지는 이미 1967년 5월 10일자로 쓰인 것이었다. 이 편지에서는 고인하는 구체적으로 1. 그간 한중합작물의 거의 전부가 실패를 거듭했고, 특히 본인(고인하)이 합작한 <탈출명령>이 “대손과”를 가져왔으며, “합작물에 아주 의욕을 상실할 만큼 일반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 2. 철저한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동남아 일대에서 흥행 전망이 극히 어둡고, 중국 측 연기자가 연기해야하는 등장인물이 전부 중공군이라는 점은 일반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점, 3. 당국의 지원고려를 얻을 길이 전무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1번과 2번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애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지되었던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3번이 보다 실질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중흥영업으로서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작 지원과 상영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반공합작’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방영화사는 5월에 수신된 대만 측의 거절 편지를 무려 4개월 동안 제출을 보류한 뒤, 9월 제작이 착수된 이후 공보부에 접수했다. 공보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고 난 뒤의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보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보부가 이 공문을 수신한 뒤, 한중합작이 아닌 연방영화사 단독제작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만 검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³⁷⁾

요컨대, <칼 맑스의 제자들>은 국가의 주도 하에 한중합작으로 기획되었고 공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방면에 걸친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획은 합작 상대방으로 ‘지목’되었던 대만 측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즉, 대만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반공영화’의

37) 「극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 제작승인(1967.10.16.)」,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제작과 상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에 전혀 교감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만 영화 시장에서도 ‘반공’ ‘전쟁’ 영화는 철지난 유행으로 외면 받는 장르에 불과함이, 신필름-중앙전영, 연방영화사-증흥영업 두 번의 합작 시도 실패를 통해 철저하게 증명되었다. 나아가 ‘한중합작’ 자체가 대만 영화 산업 안에서 한국영화 수입과 상영의 맥락 및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단일한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칼 맑스의 제자들>에게는 지난한 ‘한중합작’ 시도의 실패를 뒤로 하고 ‘반공영화’로 제작, 수출되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길만이 남았다.

3. 실패한 기획으로서의 ‘수출용’ ‘반공영화’

이 장에서는 <칼 맑스의 제자들>이 원작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 그리고 녹음 대본으로 개작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후 이 영화가 수출에 실패하게 되는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원작과 한중합작을 염두에 두고 개작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비교한 뒤, 한중합작이 무산된 뒤에 한국 단독 제작으로 완성된 필름의 녹음 대본을 대조함으로써, 각 시나리오가 어떤 방식으로 반공을 강화하면서 선전영화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합작의 추진이 무엇보다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의 진출을 겨냥한 기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공영화’로 완성된 <칼 맑스의 제자들>이 실제 수출 시도에서 결국 좌절하게 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국가 주도의 영화 수출 기획이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1. ‘반공’이 강화되는 개작의 과정

<칼 맑스의 제자들>은 현재 『영화TV예술』에 실린 이은성의 원작 시나리오, 라디오 드라마 각색을 거친 뒤 만들어진 오리지널 시나리오, 그

리고 녹음대본과 동일한 심의대본이 남아 있다. 필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칼 맑스의 제자들>의 상영본이 검열을 거쳐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녹음대본이 영화화된 최종본에 가깝다는 점을 전제하고 개작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원작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포로 및 부상병 수송 업무를 맡은 중공군과 북한군 장교들을 중심으로, 다중 주인공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원작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으로 떠난 애인으로 인해 자유세계로의 탈출을 준비 중인 중공군 가총위, 누구보다 충실한 공산당 장교였으나 동생이 한국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사찰대상이 된 지원병 상위, 악랄한 중공군 표소좌와 이에 동조하는 북한군 윤소좌, 그리고 지상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입된 지상위의 애인인 오선영 소위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표소좌와 윤소좌는 가총위와 지상위, 그리고 오소위를 의심하며 이들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시험하던 중, 상부로부터 암호로 된 명령을 받는다. 이 지령은 UN군 포로들과 아군의 부상병들을 실은 열차를 보급품 열차로 위장하여 UN군의 폭격을 유도하고 이를 촬영하여 배포함으로써 UN군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라는 것이었다. 포로 및 아군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공산당의 작전에 경악한 세 장교와 몇몇 동조자들은 이 작전을 막으려다 실패하고 탈출을 감행하지만, 최후의 귀순을 앞두고 가총위를 제외한 모두가 사살 당한다. 말하자면 원작은,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이루어진 공산군 조직 안에서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선택할 권리”(20썸)를 찾아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군 및 중공군의 서사를 그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원작자인 이은성 각색으로 쓰였다. 조남사 각색으로 방송되었던 라디오 연속극이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원본과 비교할 때 이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극적인 장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각색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장면들은 괴뢰군 대 UN군이라는 갈등 구도를 강화하거나 지원병의 귀순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서사적 역할로 삽입된다.

구체적인 개작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지원범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그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극적 갈등을 새롭게 삽입했다. 원작에서 지원범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거의 비슷한 비중이지만, 오리지널 시나리오에는 지원범의 과거, 오선영과의 러브스토리, 소련 정보장교 출신 소좌 진춘분과의 관계, 그리고 동생 지동범과의 갈등 등 원작에 없었던 지원범의 서사를 중심으로 놓는다. 특히 국군 장교로 북한군의 포로가 된 지동범과의 재회와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은 이 시나리오의 중심 주제를 구성하며, 지원범이 동생의 사형을 지휘하는 장면은 극적 절정의 순간을 이룬다. 혈육조차 자신의 손으로 죽이도록 강제하는 공산당의 비인간적인 잔인함,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없게 만드는 비윤리성은 지원범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원작에는 이름도 없이 국군에 협조했다는 정도로 언급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의 몰살을 초래했다는 것이 암시된 지동범이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국군 소위로 등장하여 시종 당당하고 의협심 넘치는 태도와 기개를 보인다는 점 역시, 원작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리지널 시나리오에는 지원범을 주인공으로 삼아 시나리오의 중심 갈등을 지원범 위주로 재구성했는데, 특히 동생인 국군 소위 지동범과 UN군 포로들을 대척점에 놓음으로써 비열하고 비겁한 ‘괴뢰군’ 대 정의롭고 용감한 ‘연합군’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적 구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동범의 총살을 지휘하는 지원범을 그림으로써, 반인륜적인 공산 체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

둘째, 여성 캐릭터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원작에서 오선영은 지원범과 같은 고향 출신이지만,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중공군 장군의 딸로 등장한다. 지원범이 유학생이던 시절 만나 약혼을 한 두 사람의 과거 장면들은 다양한 러브씬을 동반한다. 오선영은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미국 고문의 인정”과 “자유도 인명을 아끼는 사상도” 경험한 인물이자, 지원범에게 남한으로 귀순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는 인물이다. 즉, 오리지널 시나리오에는 오선영에게 ‘장군의 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범의 귀순 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범과

의 러브씬, 진춘분에게 고문당하는 씬 등 다양한 서사를 삽입하여 여자 주인공으로서의 비중을 높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2차 영화법 개정 이후 합작영화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6년 이후 합작국가들끼리 배우의 비중을 배분해야한다는 새로운 규정³⁸⁾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신필름-중앙전영 사이 합작결렬의 사유 중 하나가 배우 역할 분배의 불공평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중국인’ 오선영의 비중이 커진 것은 자연스러운 개작의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오선영이 여성 주인공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러브씬이 상당히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들의 수위 역시 선정성을 담보로 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오선영-지원범의 관계를 위협하는 제3의 인물인 진춘분을 등장시켜 이들의 관계에 긴장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또 다른 에로틱한 장면들을 삽입할 여지를 만든다. 지원범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표소좌에게 애정 공세를 받는 진춘분의 존재는 원작에 없던 성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또한, 소련군 정보장교로 교육받은 이력이 강조됨으로써, 진춘분을 통해 호색적이고 잔인한 소련군을 이미지화한다.

셋째, 원작과 비교할 때 인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액션씬이 증가한 반면, 기마 부대 등이 등장하는 액션씬과 마지막 탈출씬은 보다 현실적인 액션씬으로 대체되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첫 씬은 중공군의 배신으로 소대원이 전멸한 상태에서 겨우 살아남은 지원범이 중공군 장교를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또, 원작에서 포로수용소에 UN군 전투기의 공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지동범을 비롯한 UN군 포로들이 지붕위에 올라가 십자가 대형을 그림으로써 적극적으로 폭탄 투하를 유도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원작에서 새롭게 추가된 이

38) 기존에는 합작 배우들이 혼성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었으나,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 시행령에서 합작영화의 허가기준이 크게 개정되면서, 영화의 제작을 공동으로 할 것, 제작비용을 공동으로 출자할 것, 출연자의 배역이 상당한 정도로 혼성될 것 등의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영화법 시행령」, 1966.5.5. 제4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220>

두 시퀀스는 각각 중공군의 비열함을 참지 못한 지원병 상위의 ‘정의로운’ 단죄의 행위, 그리고 한국군을 비롯한 UN군의 용감한 살신성인의 자세와 폭격을 피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비겁하게 방공호로 숨어드는 ‘괴뢰군’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반면, 마지막 탈출 씬에서 주인공 일행을 쫓는 기마부대가 산맥을 넘나들며 추격하는 씬은 폭탄과 총격이 난무하는 장면으로, 보다 현실적인 촬영을 염두에 두고 바뀌었다.

이렇게 극적인 구조를 강화하면서 UN군대 괴뢰군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적 구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작된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녹음 대본으로 가면서 제작과 상영의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극적인 캐릭터들과 스펙터클한 볼거리들이 축소, 삭제되는 방향으로 다시 개작되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합작을 전제로 쓰인 것이라면, 녹음 대본은 합작 무산 이후 마지막 편집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녹음 대본에서는 먼저, 대만 배우들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성 주인공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한, 액션 장면들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원작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바뀔 때 액션씬의 변화가 주로 UN군과 공산군 사이의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녹음 대본으로 바뀔 때의 변화는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 오선영이 중공군일 필요가 없다. 오선영은 다시 지원병과 같은 마을 출신의 평범한 여성으로 설정되고, 러브씬들은 대폭 축소되었다. 오선영 역에 대만 배우를 캐스팅하여 주요 역할을 부여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녹음 대본에서 오선영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국가주도의 ‘반공영화’라는 이유도 농도 짙게 묘사되었던 정사씬 등을 축소시키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선영과 지원병의 정사씬뿐 아니라 진춘분과 지원병 사이의 섹슈얼한 긴장감 역시 대부분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 있던 장면들은 검열에 의해 한 번 더 축소되면서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³⁹⁾

둘째, 액션 씬이 축소되었다. <갈 맵스의 제자들>의 원작자 이은성이

철도청 공무원 소속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원작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열차 장면이 유난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철도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보부에서는 철도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철도청의 지원은 연방영화사가 요청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남아 있는 140여 장의 스틸 사진들로 미루어볼 때, 석탄을 실은 화차, 기관사의 열차 정비 장면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작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설정된 상당한 분량의 열차씬, 즉 열차 폭파 씬이나 열차 안에서의 액션씬 등은 남아 있지 않다. 특히, 포로와 환자를 실은 열차를 군수열차로 위장하여 폭파를 유도한다는 주요 설정은, 포로와 환자들을 터널 안으로 들여보내 터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작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각각 135-185씬까지 총 51씬, 130-161씬까지 총 31씬으로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었던 마지막 탈출 장면은 91-109씬까지, 총 19개의 씬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원작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이들이 귀순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등장하며 여기서 여러 차례의 전투 씬과 액션 씬이 등장한다. 특히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지원병이 오선영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 진춘분과의 격렬한 총격 씬이 등장하며, 이들이 산 곳곳을 누비며 공산군과 전투 및 추격을 벌이는 장면이 영화 후반부의 주요 액션 씬을 구성한다. 원작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영화의 마지막 절정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녹음 대본에서는 이 장면들이 대폭 축소된다. 터널 폭파 후 이들의 탈출 장면은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며 다소 갑작스럽게 보일만큼 급박하게 결말에 이른다. 이처럼 액션 씬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은 무엇보다 합작이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전체 예산과 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반

39) 공보부는 「극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 제작승인(1967.10.16.)」 문건에서 “임산부에게 과도한 잔인성이 노출된” 장면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들”을 개작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심의대본은 이미 이러한 장면들이 검열의 요청에 의해 개정된 상태라 볼 수 있다. 『장편영화 칼 맑스의 제자들 검열합격(1968.5.4.)』,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열차 폭파 씬이나 비행기 폭격 장면, 겨울의 산을 누비는 긴 시퀀스의 탈출, 추격 씬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영화’로서 <칼 맑스의 제자들>의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녹음대본은 여성 캐릭터를 축소하여 극적 갈등과 선정성을 삭제함으로써 ‘전체관람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열차 폭파 등의 주요 볼거리와 겨울 산에서 벌어지는 추격 씬 등의 스펙터클한 액션씬들이 전체 삭제 또는 대폭 축소됨으로써, ‘전쟁영화’에 기대되는 스펙터클함이 사라지는 방향의 개작이 이루어졌다. 즉, <칼 맑스의 제자들>의 마지막 개작은, 제작을 현실화하면서 ‘전체 관람가’ ‘반공영화’로서의 정체성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국가 주도 ‘영화 수출’ 기획의 허구성

완성된 영화는 1968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전국에 상영되었다. “장대한 휴먼 드라마”, “총격박진의 스펙타클” 등으로 광고된 <칼 맑스의 제자들>은 3만 명 안팎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⁴⁰⁾ 1966년 제출되었던 원작 시나리오와 곧바로 드라마화되었던 라디오 연속극으로는 평단과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기대를 모았던 <칼 맑스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친 합작기획의 실패와 제작 지연, ‘전쟁영화’로서의 쾌감을 지우고 ‘반공영화’로서의 대결구도만이 남는 개작 등으로 인해, 1968년 5월에 개봉했으나 관객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애초에 ‘대만’과의 합작을 전제로 했던 이 기획은 같은 반공-군사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대만과 손을 잡음으로써, ‘반공’이라는 주제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1957년 <이국정원>을 비롯한 대부분

40) 「실패 못 거두는 스크린 쿼터제/ 외화관의 출혈만을 강요/ 우수방향 상영 의의 상실」, 『대한일보』 1968.8.24.6면. 이 기사는 1968년 상반기에 외화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중 <춘향>을 빼고는 모두 “홍행에 실패”했다면서, 그 중 한 편으로 <칼 맑스의 제자들>을 거론한다.

의 합작영화들이 홍콩을 상대국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66년 <탈출 명령>과 <국제금괴사건>(장일호) 단 두 편의 합작 성과를 냈을 뿐인 ‘대만’을 상대로 확정했던 것은 무엇보다 ‘반공’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대만에 대한 외교 기조 역시 이 기획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대만과 반공을 기초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추구해 왔고 1964년 ‘한중우호조약’ 체결로 다방면의 협정과 조약 체결이 잇달았으며, 특히 문화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었다.⁴¹⁾ 또한,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아의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제12차 회의(1966년 11월 3일)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반공 공보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⁴²⁾ 즉, 같은 식민과 내전의 역사를 가진 반공국가로서의 동질감에 더하여, 대만과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정책 기류, 이듬해의 선거를 앞두고 더욱 더 국내외적 반공 공보 성과를 이루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분위기 등의 국가적 기조 역시 1966년 3월 ‘한중합작반공영화’ 기획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맥락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하에 따르면, 이 영화는 한국 측의 의지와 달리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지 못했다. <칼 맑스의 제자들>이 수출 실패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인하의 구술을 통해 당시 한국영화의 동남아시아 상영에 대한 대략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인하는 <탈출 명령>의 실패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뒤, 강범구 감독이

41) 1960년대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으며, 양국은 각종 협정과 조약을 잇달아 체결했고 고위 관원과 군부 고위층의 잦은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1964년 한중우호조약 체결 이후 이런 기조가 강화되었다. 사실 한국은 한중우호조약 체결 이전, 1963년에 중화민국이 먼저 제기했던 쌍방 문화협정 체결에 먼저 주력하였으나, 대만 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대만에 수입되던 일본잡지와 영화 등이 많은데 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일본 측에서도 문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손준식, 「‘兄弟之邦’에서 ‘兕地之邦’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48-1992)-」, 『중국근현대사연구』 2013, 제58집, 36-38쪽.

42) 서상현, 「1966년 박정희 정권의 반공 공보 성과 추진 시도와 좌절- 세계반공연맹 창설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9권, 2023, 60쪽.

소개한 연방영화사 주동진 대표로부터 다섯 편의 영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 영화들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고, 한국에 대만영화 등을 소개하면서 다시 영화수입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대만의 경우는 외화 수입 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시아에 영화를 판매했는데,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화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대상이었다. 이때 한국영화들은 홍콩에서 중국어로 더빙한 뒤, “중국영화”처럼 상영되었다. 한국영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초기에 수출했던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미워도 다시 한 번> 시리즈가 이 지역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다.⁴³⁾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인하가 기억하는 <칼 맑스의 제자들>을 살펴보자.

1.

질문자: 주동진씨가 주셨던 영화 5편을 기억하십니까?

고인하: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편은 강범구 감독의 영화인데 칼 마르크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4편은 기억이 안나요. 그 후에 이우석 씨를 통해 <미워도 다시 한 번3>을 구매했죠.

질문자: 5편을 사서 타이완에 돌아와 상영한 후에 다시 한국에 가서 이우석 씨와 만나 구매를...

고인하: <미워도 다시 한 번>

질문자: 우선 5편을 가지고 와서 타이완에서 상영했나요?

고인하: 동남아시아로 배급했죠.

질문자: 5편도 동남아시아로 판매한 건가요?

고인하: 네. 타이완은 외화 쿼터 때문에 상영할 수 없었으니까요.⁴⁴⁾

2.

질문자: 주동진 씨한테 5편의 영화를 받으셨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어

43) 「고인하」, 54-46쪽 참고.

44) 「고인하」, 54쪽.

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판매했나요?

고인하: 홍콩에서 중국어로 더빙해서요. 칼 맑스 영화는 반공영화라
원하지 않아서 판매가 안됐고 나머지만 판매됐죠.⁴⁵⁾

고인하의 구술에 따르면, <칼 맑스의 제자들>은 1966년 <탈출명령> 실패 후, 한국에서 처음 받아들인 다섯 편의 영화 중 한 편이다. 고인하는 다섯 편의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칼 맑스의 제자들>만은 그 중 한 편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사실상 <칼 맑스의 제자들>은 1968년에 제작이 완료되어 상영되었기 때문에, 고인하가 1966년에 연방영화사에서 받아들 수 있는 완성작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아마도 이 시기에 <칼 맑스의 제자들> 합작제안을 받고 이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의 기억에 특별히 남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문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화가 완성된 뒤 수출을 타진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다른 작품들은 모두 판매되었음에도, <칼 맑스의 제자들>만큼은 “반공영화라 원하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됐”다는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유일하게 판매되지 않았던 영화였던 <칼 맑스의 제자들>이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 영화의 기획의도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구술문에서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장르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고인하는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은 “멜로 영화”, “두 번째가 액션 영화, 그 다음이 고전물”이었다고 언급한다.⁴⁶⁾ 이 증언 역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공전의 히트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기사들에서 대부분 우위를 차지했던 ‘액션 영화’보다 ‘멜로 영화’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기 반공영화가 대만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관객들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장르였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두 번의 합작 시도 거절의 사유에 분명하게 적시되

45) 「고인하」, 55쪽.

46) 「고인하」, 56쪽.

어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즉, 중앙영화사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영화들 (인용자: 반공영화)이 이미 이 지역에서 많이 상영되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의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유를 제시했고, 증흥영업은 “철저한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동남아 일대에서 흥행 전망이 극히 어둡”다고 설명한 바 있었다. 이들의 언급은 매우 직접적으로 ‘반공영화’로서는 더 이상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함을 단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 맑스의 제자들>의 수출 실패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기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현실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칼 맑스의 제자들>은 반공영화로 기획되었고 반공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결국 반공영화이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못했던, 실패한 기획으로 남았다.

4. 맺음말

1966년 3월 공보부의 시나리오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968년 5월 영화가 상영되기까지 <칼 맑스의 제자들>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66년 3월이라는 시점에서 ‘반공우방국’이었던 대만과의 ‘합작’을 추진하고자 했던 국가의 기획은 반공공보와 영화 수출의 욕망이 교차한 지점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대만영화 산업 안에서의 외화 수용의 변화, 한중 합작영화 <탈출명령>의 큰 실패, 전쟁·반공·영화 장르의 시의성 문제, 대만 정부의 지원 부재 등 다양한 층위의 요인으로 인해, 이 합작 시도는 신필름-중앙전영, 연방영화사-증흥영업 등 두 차례에 걸쳐 좌절되었고, 1967년 9월 시점에서 연방영화사 단독 제작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작은 라디오 드라마를 거쳐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녹음 대본으로 개작되면서, 멜로드라마와 전쟁영화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반공 선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의 개작은 수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실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결국, <칼 맑스의 제자들>은 합작과 수출을 위해 기획되었으나, 합작에

도 실패하고 수출에도 실패함으로써 기획의 목적을 철저히 배반한 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실패가 1960년대 한국영화에서 국가의 기획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필름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실제 동남아시아 수출과 상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술에만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칼 맑스의 제자들>을 비롯한 1960년대 중후반 한국영화의 동남아시아 수출의 실패/성공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칼 맑스의 제자들』, 『영화TV예술』, 1966년 8월호(관리번호: DJNK078_0014)
- 『칼 맑스의 제자들(오리지널 시나리오)』(관리번호: CKO002837)
- 『칼 맑스의 제자들(녹음대본)』(관리번호: DCKR003887)
- 『칼 맑스의 제자들(심의대본)』(관리번호: DCKD006841)
- 『칼 맑스의 제자들 심의서류』
- 『탈출명령 심의서류』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66』. 한국영상자료원, 2007.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67』, 한국영상자료원, 2008.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68』, 한국영상자료원, 2009.

논저

- 박지연,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 2005.
- 사우축, 「1970년대 대만 국책영화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서상현, 「1966년 박정희 정권의 반공 공보 성과 추진 시도와 좌절- 세계반공연맹 창설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9권, 2023, 47-78쪽.
- 손준식, 「‘兄弟之邦’에서 ‘兪地之邦’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48-1992)-」,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8집, 2013, 27-53쪽.
- 이영재, 「아시아영화제와 한홍합작 시대극- 아시아영화라는 범주의 생성과 냉전」, 『대동문화연구』 제88집, 2014, 263-302쪽.
- 정종화, 「1960, 70년대 한국영화 기술사」, 이효인 외, 『한국영화사 공부 1960-1979』, 한국영상자료원 편, 2004.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2015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합작영화 1: 강범구』, 배수경 채록연구, 2015.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2015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합작영화 1: 고인하』, 박혜영·배수경 채록연구, 2015.

Abstract

A Failed Government-led Korea-Taiwan Anti-Communist Co-production Project: *Disciples of K.Marx* (1968)

PARK, Sunyou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ailure of *Disciples of K. Marx*, a state-sponsored "Korea-Taiwan anti-communist co-production," by reconstructing its trajectory from script competition to exhibition. It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s commercial desires and the state's ideological imperatives in the mid-1960s.

Despite the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s efforts to leverage Taiwan's status as an anti-communist ally, the project faltered due to shifting dynamics in the Taiwanese market, the previous failure of *Escape Order*, and a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Crucially, the narrative underwent a series of regressions: the original script was first adapted into a radio drama, then back into an 'original' screenplay, and finally into a recording script. This iterative process stripped the work of its generic appeal as a melodrama and war film while intensifying its didactic propaganda, ultimately leading to its failure as an export. *Disciples of K. Marx* thus serves as a definitive case study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tate-driven cinematic projects in 1960s Korea.

Keywords: anti-communism; co-production; *Disciples of K.Marx*; export; Korea-Taiwan anti-communist co-production project; Taiwan

124 한국학연구 96

박선영

소 속: 고려대학교

전자우편: foxy925@gmail.com

논문투고일 2026. 02. 10 / 심사완료일 2026. 03. 09 / 게재결정일 2026. 03. 14